

화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

휴양마을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화순군은 지난 26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과 체험·휴양마을의 다양성을 통해 농촌에는 소득 증대를, 도시민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체험·휴양마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순군수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14개 체험·휴양마을에서 17명의 위원장 또는 사무장이

참여하여 자유롭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각 마을의 향후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화순군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구복규 군수는 "어떤 시설을 갖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이 현재의 운영 방식에 열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영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화순=주유현 기자

장성, 노인일자리사업 폭염대책 추진

혹서기 근무시간 8~11시로 조정...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장성군이 혹서기를 대비해 노인일자리사업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1616명의 근로시간을 기존 9~12시에서 8~11시로 1시간 앞당긴다.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선 5월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 전원에게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활동조끼와 모자를 제공한 바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익형, 시장형 참여자 활동 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추진

30개 마을 1000여명 농업인 대상 현장기술 지원

영광군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30개 마을 1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전문 농촌지도사들이 마을 모정으로 직접 찾아가 상반기 영농상황을 확인하고, 작물생육의 중·후기 관리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요 작물인 벼,

고추, 논콩 등의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기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상기온과 태풍에 대비하는 방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고윤자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작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농업인들께서는 꼭 참여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 유연한 규제혁신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 앞장

군민참여·현장 중심 생활 밀접 규제개선 등 다양한 노력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현장 애로사항 적극 검토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 불편 최소화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농공·산업단지, 건축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생활

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하여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90여 건의 규제 건의사항을 검토했으며 그중 10여 건이 의회 승인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최종 완화됐다.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완화한 규제로는 개발행위 분야에서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0,00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인 표고를 3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완화하며 불편을 해소했다.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허용범위까지 완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3층 이상 또는 12m에서 5층 이상 또는 높이 21m까지 완화 ▲금성·무정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60%에서 70%까지 완화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지붕과 이격거리를 기존 밀부착에서 최대 3m까지 이격 가능하도록 완화 ▲건축물 지붕 색채, 형태, 재료에 대한 규제를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실생활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접수한 규제 중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담양군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탈피하고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완화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자 대상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으며,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경제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과도했던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군민 주거 행복권 보장과 같이 신중해야 할 규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준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 민선 8기 1주년 '현장 중심 소통행정'

26일~29일 나흘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나서

이상익 함평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친다.

함평군은 "이상익 군수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제일 먼저 함평을 내교리와 기가리 등 상습 침수 지역을 찾아

점검후우 대비에 나섰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잇달았던 곳으로, 군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이날 현장 방문해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재해에 대비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부서별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군수는 오는 29일까지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함평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함평=김동희 기자



장흥 '농어촌융복합휴양밸리 사업' 주민설명회

김성 군수 "삼산간척지, 미래 복합영농 성장산업 중심지 육성"

장흥군은 26일 관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장흥 농어촌융복합휴양밸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융복합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량이 저조한 삼산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다.

관산을 삼산리, 신동리 일원 244ha 부지에 민자유치를 통해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153ha, 농

어촌관광휴양단지 91ha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스마트팜 집적화단지, 유통단지, 그린에너지단지, 블루밍필드, 스마트 수산단지 등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와 콘도미니엄, 스포츠센터, 농업업 전시·체험관 및 판매장 등 농어촌관광휴양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7월 SK에코플랜트 외 4개 민간투자법인과 '블루에너지 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계획 및 추진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이다.

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삼산간척지를 생산부터 소비, 관광에 이르는 미래 복합영농 성장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나주 지석천 솔밭공원 야영·취사 등 집중 단속

나주시가 남평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 기승을 부려왔던 '장박 텐트'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팔을 걷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다음달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드물길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에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km구간이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15일 동안 행정예고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5일까지 계도 활동에 나선다.

7월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지구역 지정·고시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야영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하천 생태계 오염, 불법 쓰레기 투기, 알박기 텐트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나주=조성준 기자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담양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대슬맑은 담양쌀

대슬맑은 담양한우

떡갈비

전통주

담양사랑 상품권

한과(약과)

쌀엿

장류

죽순

관광문화상품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단감

담양에 기부하시면 고향의 마음이 담긴 정성 가득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관련 문의 ☎ 061) 380-3217~3220